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 23, No. 1, 2017 (97-112)
Issn 1225-8857(Print) / Issn 2288-9493(Online)
Http://Dx.Doi.Org/10.7851/Ksrp.2017.23.1.097

도시 및 농촌지역 사업체 유형별 노동시장 안정성 비교분석: 산업군, 종사자규모 및 존속기간별 유형을 중심으로

이제명
*교토대학교 지역환경과학전공

Analysis and Comparison of Labor Market Stability by Business Categories in Urban and Rural Areas : Industrial Group, Employment Size, and Survival Duration

Lee, Jemyung*
*Postdoctoal associate, Division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Kyoto University, Japan

ABSTRACT : Stability of labor market in rural areas was analyzed in this paper with categories of industrial group, employment scale, surviving period, and founder group. The stability of each classified labor market was compared with each other to figure out the stable business class and the unstable class in rural areas. The results of rural area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urban areas. The stability was analyzed with average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C.V.) of annual total employees' change rates. It was revealed that labor market of 'primary industry', including agriculture, is unstable. Especially, labor market of 'mid-size' and 'primary industry' businesses founded as 'incorporated company' in rural areas is vulnerable. While labor market of 'large-size' is proved to be unstable, it is confirmed that 'small-size' or 'mid-size', and 'over-ten-year survived' businesses have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stable labor market in rural and urban areas. The results show that the stability of labor market is different in each category of business and in each region of rural or urban area.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can be utilized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labor and industry part.

Key words : Stability, Labor Market, Rural Areas, Agriculture, Primary Industry, Categorized Businesses

I. 서 론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고령화, 산업침체와 같은 문제의 근본원인은 급격한 인구유출에 있으며, 이러한 인구이탈은 농촌의 일자리 부족이 주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Lee, 2013a). 인구유출이 지역산업 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관광자원 개발(Ahn, 2010), 향토산업육성(Kim et al., 2012), 6차산업자원 개발(Yang et al., 2014) 등의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지역에 노동집약적 산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Park and Kim, 2010)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지역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시장 확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여 고용유연성(Lee, 2013b), 기업지배구조(Jung, 2008) 및 산업다양성(Ryu et al. 2014) 등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여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산업다양성 요인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지역산업 다양성의 증가가 노동시장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주장(Izraeli and Murphy, 2003; Malizia and Ke, 1993; Simon, 1988; Trendle and Shorney, 2003),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Mason and Howard, 2011),

Corresponding author : Lee, Jemyung
Tel : +81-75-753-6159
E-mail : lgm00@snu.ac.kr

그리고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Mizuno et al., 2006; Ryu and Yoon, 2007)이 공존하는 등 분석대상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도출된 결과를 분석대상과 다른 지역과 산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도시지역과 제조업을 위주로 진행된 기존 연구결과를 농촌지역과 농업분야의 노동시장 안정성 분석에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업체 관련 통계자료에 등록된 종사자 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규모의 증감 변화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분석대상에 따라 종사자의 재직형태(Keum and Cho, 2001)나 기업규모(Ryu, 2009)에 따른 고용안정성을 연구하거나 고령자를 대상으로(Lee, 2012)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Byun(2010)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과 관련한 연구는 전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분석보다는 종사자 개인이 고용상태를 유지할 안정성인 고용안정성을 다루어 지역 또는 산업 전반에 대한 노동시장 안정성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노동시장을 분석한 연구사례에서도 제조업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Sung, 2000), 기업의 관점에서 종사자의 변화양상을 다루고 있어(Hong, 2015) 이러한 연구를 통해 농촌지역, 혹은 농업 관련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통계청(2011)의 연구를 통해 국내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의 분석대상이 도시지역과 제조업·서비스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로 인해 기존 연구결과를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농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자의 고용안전성(Koo, 2016)을 분석한 사례가 있으며, Kim(2013)는 산업별 고용안정성 분석을 수행하면서 농촌지역의 농업 이외의 산업과, 도시지역의 농업 분야의 고용안정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Lee(2013a)는 대기업을 유치를 통한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확보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체의 생존성에 대한 연구는 지역별(Park, 2013; Ryu, 2013; Hong and Im, 2015), 산업별(Sung, 2000; Park, 2011), 신생사업체 대상(Na and Lee, 2007; Kim et al., 2014)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농촌지역의 신규사업체(Lee, 2016)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사업체와 연관된 노동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유형별 분석 사례는 부족하다. 특히, 도시지역과 구분되는 농촌지역 노동시장, 그리고 농업 부문의 노동시장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체 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후에 이 일자리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 또한 필수적이다. 사업체의 생멸에 비해 노동시장은 환경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취약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이탈이 지역산업 축소, 사업체 감소, 일자리 감소, 지역침체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인구유출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노동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의 안정적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종사자 수의 증감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함에 있어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체 유형별로 안정된 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체 유형과 불안정한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사업체 유형과, 지원이 필요한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별, 사업체 유형별 종사자 규모의 증감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지역 맞춤형 노동시장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종사자가 소속된 사업체의 산업군, 종사자규모, 존속기간, 그리고 설립주체별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안정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시지역과 구분되는 농촌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노동시장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노동시장 분석에 있어 종사자 개개인의 고용연속성이 아닌 사업체 유형별로 전체 종사자 수의 변화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II. 기본 이론

1. 노동시장 안정성

노동시장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분석 대상에 따라 크게 종사자 개인의 고용안정성을 다루는 분야와 사업체에 고용된 전체 종사자 규모의 안정성을 다루는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종사자의 장기근속여부

와 근로시간, 비정규직 비율과 같은 고용형태를 통해 종사자가 현재의 직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확률의 관점(Gottschalk and Moffit, 1999; Keum and Cho, 2001)으로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후자는 사업체가 고용하는 종사자의 전체 규모가 안정적으로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고용된 총인원 또는 신규 채용한 인력을 통해 전체 종사자 규모의 관점(Ahn, 2009; Ahn, 2011)으로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일자리 수의 변화를 기준으로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의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후자의 관점인 종사자 규모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과 산업연구원(2013)의 연구에서는 고용규모의 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현황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체 유형별 종사자 수의 변동률을 산정하고, 이 변동률의 평균과 변동계수를 통해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2. 사업체 유형분류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함에 있어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의 유형에 따라 안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체의 유형은 사업체가 속한 산업별, 고용된 종사자 규모별, 설립 후 영업한 존속기간별, 설립하고 운영하는 설립주체별로 구분하였다. 또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산업별 유형은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에 해당하면 1차 산업, 광업 및 제조업에 해당하면 2차 산업, 그리고 그 외의 운송업, 금융업, 숙박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3차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사업체 규모별 유형은 영세 · 소 · 중 · 대 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업체의 종사자 수에 따라 5인 미만의 '영세기업', 30인 미만의 '소기업', 300인 미만의 '중기업', 300인 이상의 '대기업'으로 분류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의 기업규모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농림어업, 금융업, 숙박업 등의 사업체는 200인 이상부터, 임대업의 경우는 50인 이상부터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등 시행령 상으로는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이 서로 다르나(중소기업중앙회, 2015)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종사자 수의 증감에 따른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산업분류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체 규모별 유형을 구분하였다.

사업체 존속기간별 유형은 '신생기업', '성장기업', '안착기업'으로 구분하였다. Lee(2016)의 연구에서 분석한 신생사업체의 설립이후 생존율 변화곡선을 참고하여 사업체 설립 이후 영업기간에 따라 생존율이 불안정한 3년 미만의 '신생기업', 생존율이 안정되어가는 10년 미만의 '성장기업,' 생존율이 안정적인 10년 이상의 '안착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사업체 설립주체별 유형은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였다.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개인이 설립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주식·유한·합자·합명회사의 조직형태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회사법인', 학교·의료 및 종교·재단 ·사단 등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회사이외법인', 법인격이 없는 종교단체·종친회·후원회 등으로 운영되는 '비법인단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의료 법인과 입법·사법·행정기관과 같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하였다.

3. 농촌지역 노동시장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노동시장 안정성에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도시지역과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농촌지역은 구직을 위한 인구유출로 인해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Lee, 2013), 이로 인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Kwon and Kim, 2014). 농촌지역 신규사업체의 생존율을 분석한 Lee(2016)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위치한 신규사업체 경우의 평균생존율은 도시지역에 비해 높지만 생존율의 안정성은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Lee(2016)의 연구에서는 1차 산업인 농림어업 신규사업체의 생존율 안정성도 분석하였는데 1차 산업 신규사업체의 생존율이 타 산업에 비해 불안정하며 특히 도시지역에 위치한 1차 산업의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체의 생존안정성은 노동시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함에 있어 산업별 분류를 포함한 사업체의 유형별로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규모, 즉 노동시장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안정성은 사업체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Kim(2014)은 농촌 내 고용문제에 있어서 농업 외 타산업의 고용 또한 중요하며, 동시에 도시지역의 농업분야 고용문제 분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함에 있어 사업체 유형별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도시지역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농촌'은 사전적으로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지역이나 마을"(농촌진흥청, 2016)로 정의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읍 · 면 · 동' 단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읍 · 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분류하고 '동'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농촌지역의 노동안정성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에 등록된 종사자의 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안정성을 산출하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통계청, 1998-2006)와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2007-2012) 원시자료(micro-data)에 수록된 사업체 정보로부터 지역코드, 산업코드, 창업년도, 조직형태코드, 그리고 종사자 수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지역코드는 '읍 · 면 · 동' 단위의 행정구역을 통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사업체로 구분하는 데에 활용하였으며, 산업코드는 1 · 2 · 3차 산업으로 분류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창업년도는 사업체의 창업 후 존속기간을 산출하는 데에 활용하였으며 조직형태 코드는 사업체의 설립주체를 구분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사자 수를 통해 사업체를 규모별로 분류하고, 각 사업체 유형별 종사자 규모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연도별 원시자료에 등록된 사업체 수의 총합과 종사자 수의 총합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2010년까지는 국내에 등록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모두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2010년 이후에 등록된 종사자 수가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에 사업체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종사자 수가 변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원시자료에 등록된 종사자 집계기준이 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 유형별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설립주체별 노동시장 분석은 원시자료 내에 설립주체를 나타내는 '조직형태' 코드가 2001년도부터 5가지 분류 형태에 대해 모두 조사되어있는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안정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안정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 수 증감률의 변화를 통해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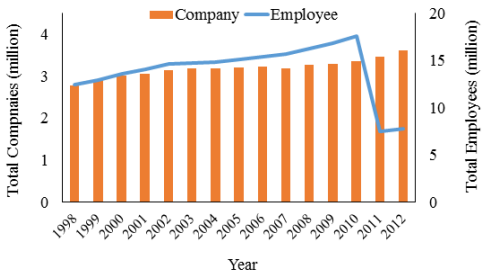


Figure 1. Total companies and employees

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하였으며, 식(1)을 통해 연도별 원시자료에 등록된 종사자 규모의 변동률을 계산하였다.

$$R_{i,t} = N_{i,t} / N_{i,t-1} \qquad (1)$$

여기서 Ri,t 은 i 유형 사업체의 t 년도 종사자 규모 변동률을 의미하며, Ni,t 는 t 년도에 i 유형 사업체에 등록된 종사자 수의 총합을 의미한다. Ri,t 값이 1.0 보다 크면 해당 유형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의 규모가 증가한 것이면 1.0 보다 작으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 수의 총합이 각 유형별 사업체의 노동시장 규모에 해당하며, 이들 규모의 변동성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 산업별, 규모별, 존속기간별, 설립주체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사업체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유형별 사업체에 등록된 종사자의 유형 i 에 따른 평균($\overline{R_i}$)과 표준편차(σ_i)를 각각 식(2)와 식(3)을 통해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식 (4)에 의해 산정함으로써 종사자 규모의 변동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종사자 규모의 변동률은 상대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날수록, 즉 변화가 클수록 변동계수의 값이 크게 나타난다.

$$\overline{R_i} = \sum_{t=t_s}^{t_e} R_{i,t} / n \qquad (2)$$

$$\sigma_i = \sqrt{\sum_{t=t_s}^{t_e} (R_{i,t} - \overline{R_i})^2 / n} \qquad (3)$$

$$CV_i = \overline{R_i} \,/\, \sigma_i \qquad (4)$$

여기서, ts 는 분석의 시작년도, te 는 분석의 종료년도를 의미하며, 식 (5)에 의해 산정되는 n 은 분석을 수

행한 연도의 수를 의미한다.

$$n = t_e - t_s + 1 \qquad (5)$$

본 연구에서는 변동률이 전체적으로 1.0 이상을 유지하여 종사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성장하였고, 변동계수의 값이 작아 노동시장 규모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수록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종사자 수의 급증 구간이 많은 사업체 유형일지라도 종사자 감소 구간이 크고 변동성이 클 경우, 즉 변동률 1.0 이하의 구간이 많으며 변동계수 값이 큰 경우는 노동시장이 불안정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3. 종사자 기본현황

분석에 사용한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청 원시자료에 등록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변동 상황을 Figure 1을 통해 살펴보면 2010년까지 매년 사업체 수와 종사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에는 이러한 종사자 수의 증가 이면에 각 사업체 유형별로 등록된 종사자의 비율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사업체 유형은 사업체의 산업, 존속기간, 고용규모 및 설립주체에 따라 구분하였다.

산업별 종사자 비율에서는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농림어업 부문의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감소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별도의 사업체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분의 농민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농림어업 분야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체의 존속기간별 종사자의 비율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설립 후 10년 이상 생존하여 사업체의 생존성이 안정적인(Lee, 2016) '안착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비율 변화는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 모두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종사자 30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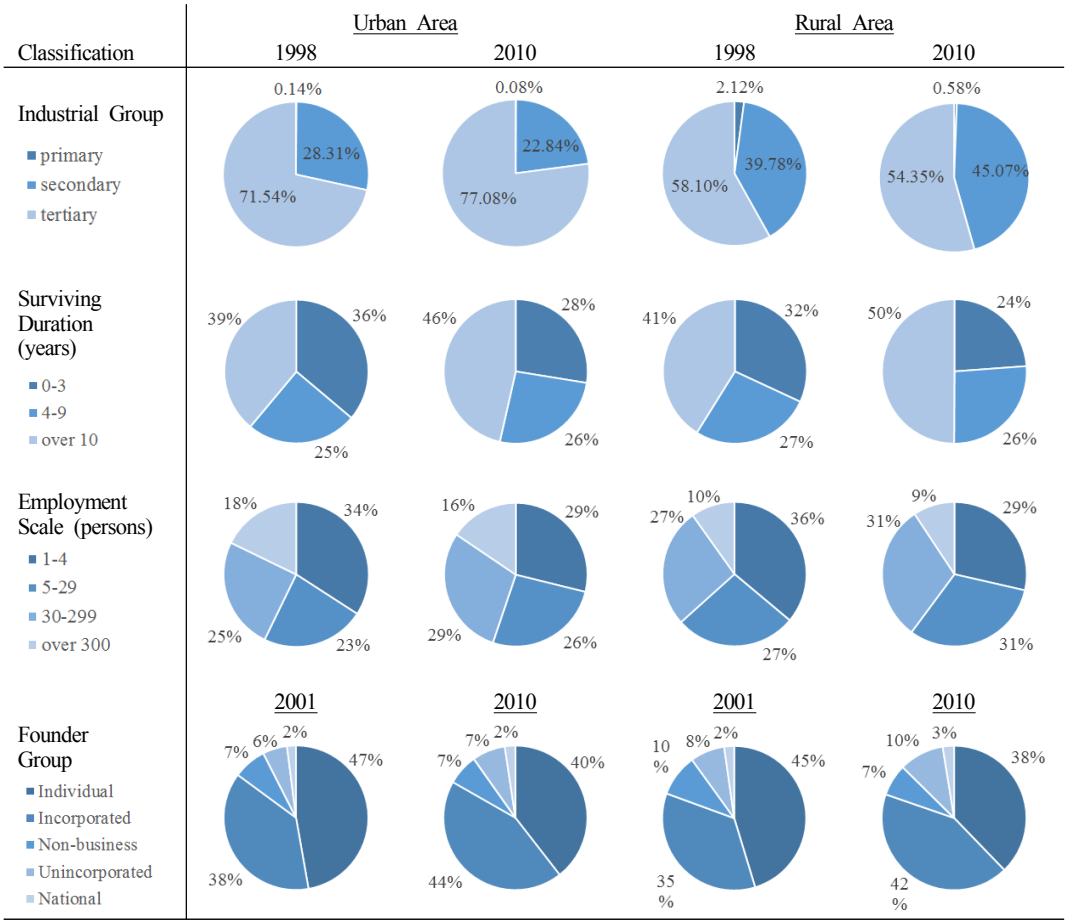


Figure 2. Proportions of employees by business categories

의 '소기업'과 300인 미만의 '중기업'의 비중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만드는 지역 노동시장의 비중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체의 설립주체별 종사자 비율에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모두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의 종사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기준으로 전체종사자 중 '개인사업체'나 '회사법인'에 등록된 종사자의 비율은 도시지역이 83%, 농촌지역이 80%로 집계되었다.'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 사업체에 등록된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사업체 유형의 노동시장 안정성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4. 종사자 분류 유형별 교차분석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지역별 및 사업체 유형별 분류에 있어서 각 유형별 종사자 분포가 서로 독립적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2000, 2005, 2010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카이제곱검정($\chi 2$, chi-squared test)을 통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체 산업별, 존속기간별, 규모별 종사자의 분포가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Pearson's $\chi 2$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도시와 농촌지역의 종사자 분포와 산업군, 사업체 존속기간, 사업체 규모에 따른 종사자 분포는 모두 p-value < 0.01 로 나타나 '지역과 사업체 유형별 종사자 분포는 독립'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종사자 분포의 지역별 분포와 사업체 유형별 분포는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차, 2차, 3차 산업의 분류별 종사자의 분포가 사업체 규모의 소, 중, 대 분류 및 존속기간 분류별 분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에 있어 전국단위,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산업별 종사자 분포는 사업체의 존속기간 및 규모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한정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의 산업별, 존속기간별, 규모별 분류에 따른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하고 이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Table 1. Pearson's χ^2 between regional groups and business groups of employees

Year	Industry[a)]	Duration[b)]	Scale[c)]
2000	4.E+05***	6.E+04***	1.E+06***
2005	5.E+05***	4.E+04***	2.E+06***
2010	7.E+05***	2.E+04***	2.E+06***

Note 1)***p < 0.01
Note 2)The region is categorized by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industrial group, b)surviving period and c)employment size

Table 2. Pearson's $\chi 2$ between industrial groups and business groups of employees

Business Categories	Year	Nation	Urban Areas	Rural Areas
Duration[a)]	2000	1.E+06***	6.E+05***	4.E+05***
	2005	1.E+06***	7.E+05***	4.E+05***
	2010	9.E+05***	6.E+05***	4.E+05***
Scale[b)]	2000	3.E+05***	3.E+05***	2.E+04***
	2005	2.E+05***	2.E+05***	2.E+04***
	2010	4.E+05***	3.E+05***	5.E+04***

Note 1)***p < 0.01
Note 2)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surviving period and b)employment size

IV. 연구결과

1. 도시, 농촌지역 노동시장 안정성

도시와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변동률을 Figure 3에 정리하였으며,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의 노동시장 변동률을 각각 Figure 4와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이들 노동시장 변동률의 평균과 변동계수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도시와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1998년에서 2010년까지의 전체적인 변동률은 평균 1.03, 변동계수는 도시지역이 0.016, 농촌지역이 0.019로 두 지역 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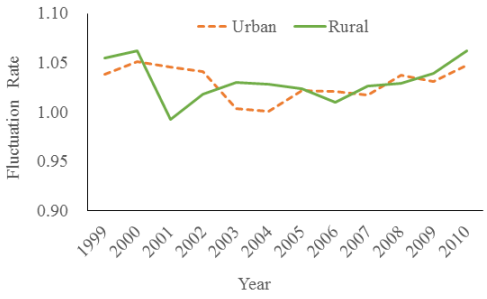


Figure 3. Annual fluctuation rates of labor markets in urban and rural areas

Figure 4에 나타난 '개인사업체'가 조성한 노동시장의 경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2001년도에 변동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하였다. Lee(2016)에 의하면 사업체의 생존율은 설립 후 2년차에 가장 취약한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개인사업체 설립이 급증하였다 2-3년 이후에 사업체 생존율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하였다. 이후에는 노동시장 규모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모습을 나타내 2001년을 제외하고는 노동시장이 일정 규모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에 나타난 '회사법인'의 경우에도 노동시장 변동률이 급감하는 구간이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1.0 이상의 변동률을 보여 시장의 규모가 2003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법인'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모두 '개인사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Average(Avg.) and Coefficient of Variance (C.V.) of Labor Market's Variability

Business Type	Urban Areas		Rural Areas	
	Avg.	C.V.	Avg.	C.V.
Total	1.03	0.016	1.03	0.019
Private	1.02	0.028	1.02	0.032
Company	1.04	0.033	1.06	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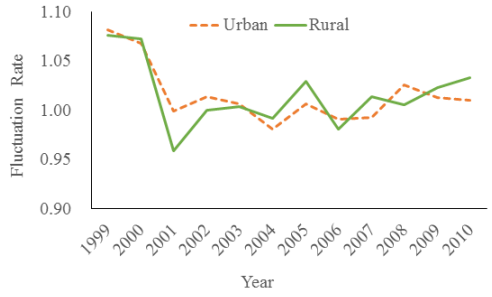


Figure 4. Annual fluctuation rates of labor markets in individual proprietorship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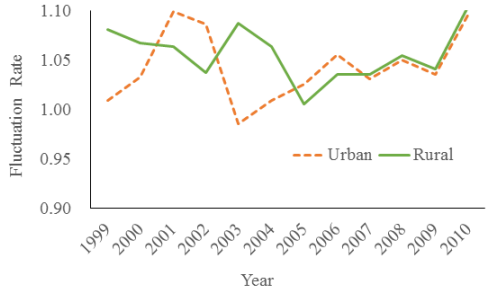


Figure 5. Annual fluctuation rates of labor markets in incorporated company group

2. 사업체 유형별 노동시장 안정성

사업체의 유형을 산업, 설립 후 존속기간, 종사자 규모별로 앞서 정리한 유형별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각 유형별 종사자 규모의 변동률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규모의 변동률 즉, 종사자 합계의 연도별 변화율을 Figure 6에 나타내고 변동률의 평균과 변동계수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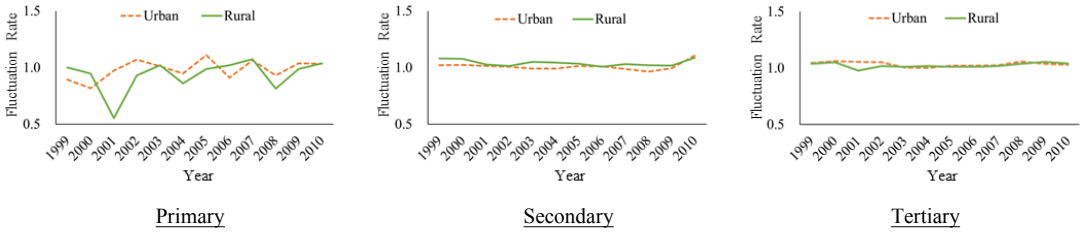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1차 산업인 농림어업 분야의 노동시장 안정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제조업의 2차 산업과 서비스업의 3차 산업의 노동시장은 변동률이 평균 1.0 이상, 변동계수도 0.033 미만으로 농림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농림어업의 경우 Figure 6에서 나타난 것처럼 변동 폭이 크며, 변동률 1.0 미만의 노동시장 감소 구간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농림어업 노동시장의 변동률은 도시지역에서 평균 0.99, 변동계수 0.084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에서는 평균 0.94, 변동계수 0.145로 나타났다.

설립 후 존속기간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설립 후 3년 미만 경과한 '신생기업', 10년 미만의 '성장기업', 그리고 10년 이상 존속한 '안착기업'으로 갈수록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체의 존속기간이 길수록 사업체의 생존율이 증가하는데(Lee, 2016), 이로 인해 사업체의 생존기간이 길수록 폐업에 의한 일자리 감소가 줄어드는 데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창업 후 존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신생기업'과 '성장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규모의 변동성에 있어 연도별 변화가 도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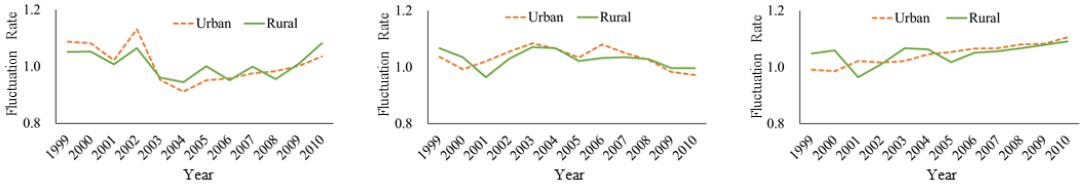
Table 4. Variability of Labor Market by Business Categories

Business Categories	Urban Areas		Rural Areas	
	Avg.	C.V.	Avg.	C.V.
Industry[a]				
Primary	0.99	0.084	0.94	0.145
Secondary	1.01	0.033	1.04	0.025
Tertiary	1.04	0.018	1.03	0.020
Duration[b]				
0-3 yrs	1.01	0.063	1.01	0.045
4-9 yrs	1.03	0.034	1.03	0.030
+10 yrs	1.05	0.035	1.05	0.032
Scale[c]				
Tiny	1.02	0.021	1.01	0.027
Small	1.04	0.051	1.04	0.028
Medium	1.04	0.024	1.04	0.034
Large	1.02	0.071	1.03	0.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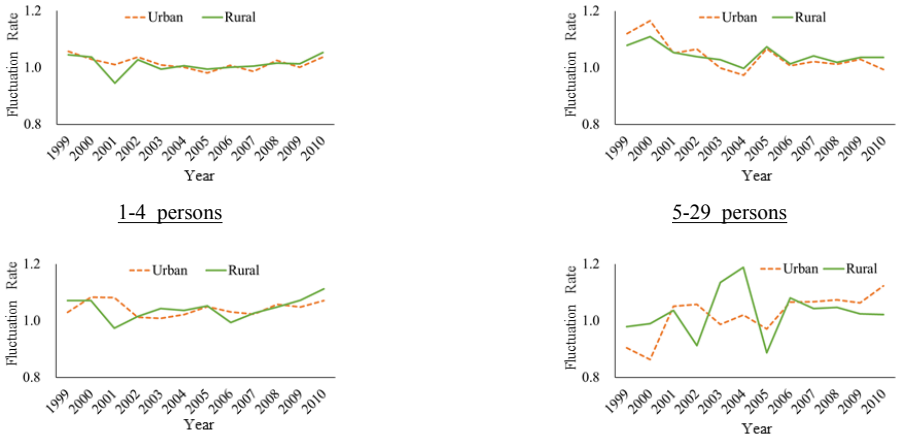
Note) 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industrial group, b)surviving period and c)employment size



a) Industrial Group



b) Surviving Duration



c) Employment Scale

Figure 6. Annual fluctuation rates of categorized labor markets

농촌지역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지역의 차이보다는 사회·경제적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종사자 수에 따른 사업체 규모별 분석결과 노동시장의 증가율은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소기업'과 '중기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동계수는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위치한 '영세기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났으나, '소기업'과 '중기업'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노동시장이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업'의 경우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이 많았으며 변동계수도 도시지역 0.071, 농촌지역 0.07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가 조성하는 노동시장은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대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높은 만큼, 고용창출을 위해 농촌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개인사업체, 회사법인 노동시장 안정성

사업체 설립주체에 따라 해당 사업체 유형의 노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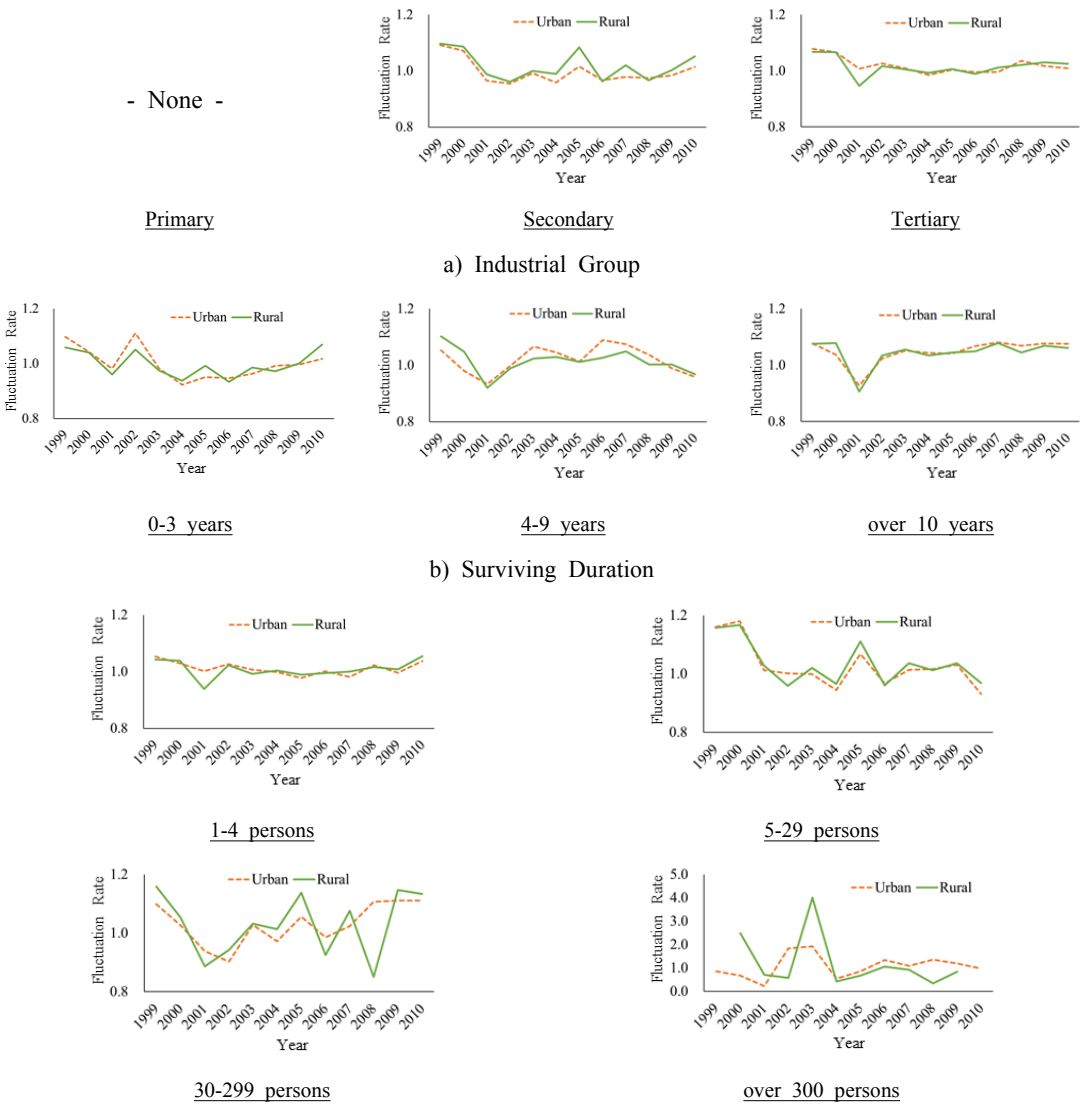


Figure 7. Annual fluctuation rates of categorized labor markets: individual proprietorship

장 안정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립주체별 노동시장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설립주체 유형 중에서 앞서 전체 노동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사업체'와 '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개인사업체

Figure 7에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개인사업체'의 유형별 노동시장 연간 변동률을 나타내었으며, Table 5에는 사업체 유형별 노동시장의 변동률 평균과 변동계수를 정리하였다.

산업별 안정성 분석에서는 통계 원시자료에 '개인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광업 · 제조업의 2차 산업과 서비스업의 3차 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농림어업의 1차 산업 종사자 중 개인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종사자는 없었으며 이는 농어민의 경우 별도로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전체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노동시장 안정성은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사업체 설립 후 10년 이상 존속한 '안착기업'일지라도 노동시장

의 규모가 급감하는 구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신생기업'과 '성장기업'의 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났는데 '개인사업체'의 노동시장은 사업체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안정성이 취약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7과 Table 5의 분석결과를 통해 사업체의 규모가 '영세기업', '소기업'·'중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커질수록 노동시장의 변동계수가 급격하게 커지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던 앞선 결과와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기업' 노동시장의 변동계수는 도시지역이 0.444, 농촌지역이 0.911로 나타나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종사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며, 그보다 규모가 큰 사업체 집단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은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종사자 30인 이상의 '중기업'과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은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경우 대규모 인원이 고용된 대기업이 이전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Variability of Labor Market in Private Businesses

Business Categories	Urban Areas Avg.	Urban Areas C.V.	Rural Areas Avg.	Rural Areas C.V.
Industry[a)]				
Primary	-	-	-	-
Secondary	1.00	0.043	1.02	0.047
Tertiary	1.02	0.027	1.02	0.031
Duration[b)]				
0-3 yrs	1.00	0.056	1.00	0.045
4-9 yrs	1.03	0.046	1.01	0.043
+10 yrs	1.05	0.039	1.04	0.042
Scale[c)]				
Tiny	1.01	0.022	1.01	0.029
Small	1.03	0.071	1.04	0.068
Medium	1.03	0.065	1.03	0.100
Large	1.07	0.444	1.20	0.911

Note) 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 industrial group, b)surviving period, and c)employment size

나. 회사법인 사업체

'회사법인' 노동시장 변동률의 평균과 변동계수를 정리한 Table 6를 살펴보면 '회사법인'의 노동시장 변동계수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Figure 8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별 분석결과에서는 농림어업 분야 '회사법인'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1.0 미만인 구간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노동시장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며, 변동계수가 도시지역이 0.136, 농촌지역이 0.120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도시지역 농림어업 '회사법인' 노동시장은 변동률 평균이 0.98로 나타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존속기간별 분석결과에서는 '신생기업'의 노동시장 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업'과 '안착기업'의 노동시장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모두 변동계수가 0.5 이상으로 변동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변동률이 전반적으로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노동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Variability of Labor Market in Incorporated Companies

Business Categories	Urban Areas Avg.	Urban Areas C.V.	Rural Areas Avg.	Rural Areas C.V.
Industry[a)]				
Primary	0.98	0.136	1.02	0.120
Secondary	1.02	0.047	1.05	0.026
Tertiary	1.06	0.043	1.07	0.038
Duration[b)]				
0-3 yrs	1.03	0.101	1.02	0.070
4-9 yrs	1.06	0.061	1.05	0.050
+10 yrs	1.04	0.058	1.08	0.052
Scale[c)]				
Tiny	1.09	0.092	1.11	0.087
Small	1.06	0.056	1.08	0.041
Medium	1.05	0.033	1.06	0.034
Large	1.02	0.094	1.02	0.100

Note) 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 industrial group, b)surviving period, and c)employment size

사업체 규모별 분석결과에서는 '영세기업'에서는 노동시장 변동계수가 '개인사업체'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기업'과 '중기업'에서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변동률이 1.0 이상을 유지하며 변동계수도 '개인사업체'의 경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모두 변동률의 평균은 낮고 변동계수는 큰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사법인'의 경우 종사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 유형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은 안정적이지 않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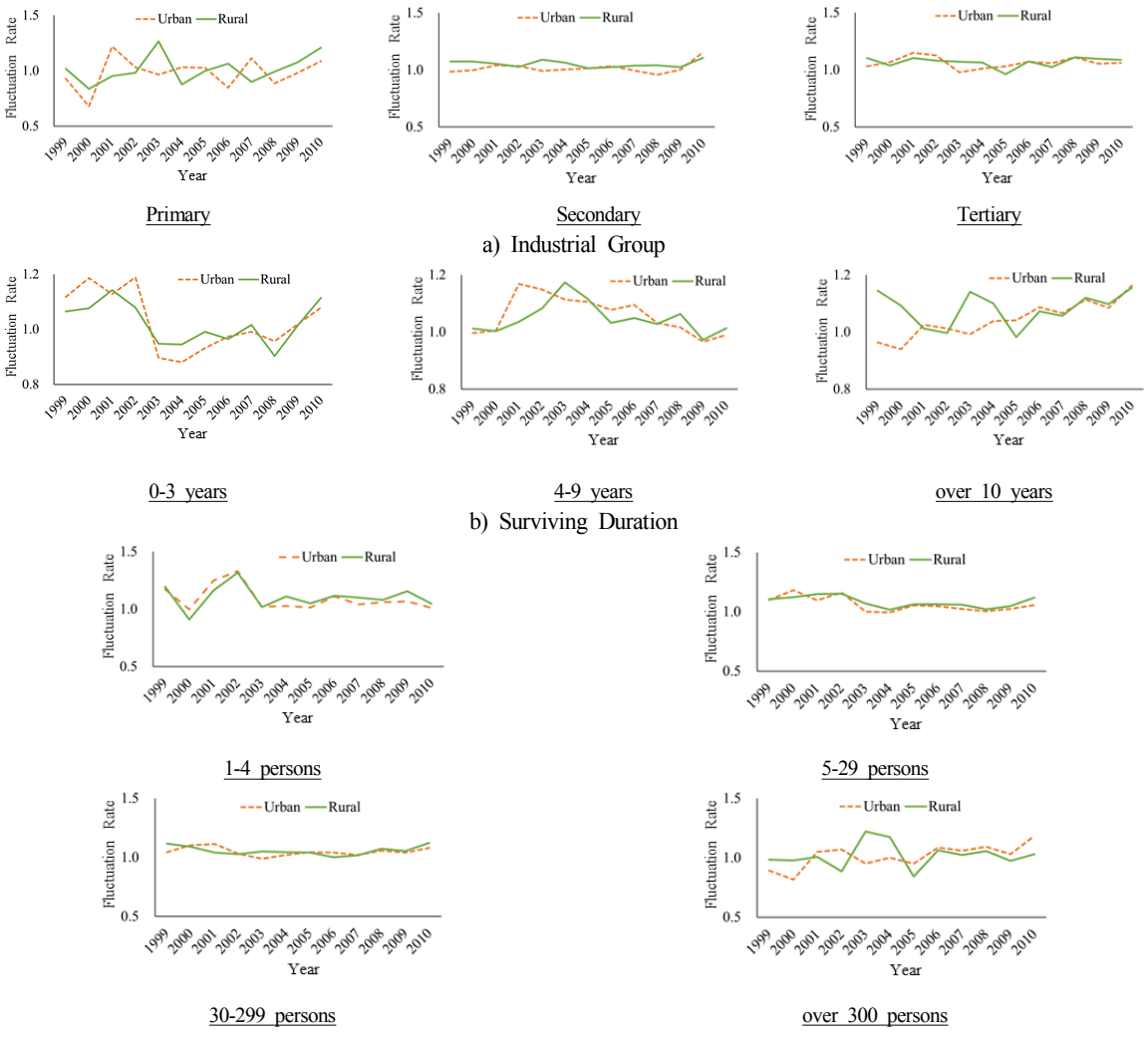


Figure 8. Annual fluctuation rates of categorized labor markets: incorporated company

Table 7. Variability of Labor Market in Incorporated Companies of Primary Industry

Business Categories	Urban Areas		Rural Areas	
	Avg.	C.V.	Avg.	C.V.
Duration[a)]				
0-3 yrs	0.99	0.220	1.04	0.292
4-9 yrs	0.98	0.202	1.01	0.179
+10 yrs	1.01	0.230	1.05	0.135
Scale[b)]				
Tiny	0.99	0.181	0.98	0.155
Small	1.02	0.167	1.02	0.157
Medium	0.99	0.191	1.07	0.251
Large	-	-	-	-

Note) 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 surviving period, and c)employment size

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농림어업 분야 '회사법인'의 사업체 유형별 노동시장을 별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Figure 9와 Table 7에 나타내었다. 존속기간별 안정성 분석에서는 농촌지역의 농림어업 '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존속기간이 많이 경과한 사업체 유형일수록 노동시장이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존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안착기업'에서 조차 변동계수가 0.135로 높게 나타났다. 도시지역에서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노동시장 변동률이 1.0 미만의 감소 구간이 많았으며 변동계수가 모두 0.2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농림어업분야 '회사법인'의 노동시장은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0년 이상 존속한 '안착기업'의 경우에도 변동계수가 0.23으로 매우 높게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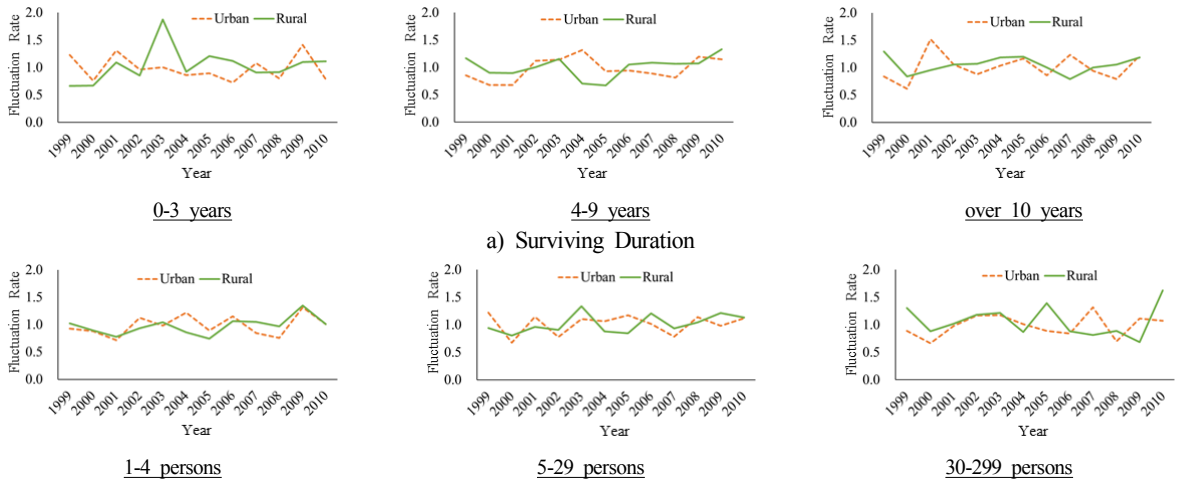


Figure 9. Annual fluctuation rates of categorized labor markets: incorporated company of primary industry

와 도시지역의 농림어업 '회사법인'의 종사자 고용규모가 안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안정성 분석결과에서는 도시지역에서는 사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중기업'의 노동시장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산업 유형에서는 '중기업'의 노동시장이 안정적이었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그 취약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4. 산업별 노동시장 안정성

전국단위, 도시지역, 농촌지역에서 1차, 2차, 3차 산업별로 노동시장의 변동성 평균과 변동계수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사업체 존속기간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Table 8에, 사업체 종사자 규모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Table 9에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농림어업 분야인 1차산업 노동시장 규모의 변동성은 평균이 낮으며 변동계수는 큰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도시지역에 위치한 1차산업의 노동시장 변동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시장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중규모 사업체가 조성하는 노동시장이

Table 8. Variability of Labor Market by Industrial Group, Region and Surviving Period

Categories Region[a)] Duration[b)]	Industrial Group Primary Avg. (C.V.)	 Secondary Avg. (C.V.)	 Tertiary Avg. (C.V.)
Nation			
0-3 yrs	0.98 (0.19)	0.99 (0.09)	1.01 (0.06)
4-9 yrs	0.96 (0.17)	1.02 (0.05)	1.04 (0.03)
+10 yrs	0.96 (0.20)	1.03 (0.05)	1.05 (0.03)
Urban Areas			
0-3 yrs	1.02 (0.32)	0.99 (0.10)	1.01 (0.06)
4-9 yrs	1.01 (0.36)	1.02 (0.06)	1.04 (0.03)
+10 yrs	1.01 (0.22)	1.02 (0.06)	1.06 (0.03)
Rural Areas			
0-3 yrs	0.97 (0.21)	1.01 (0.08)	1.01 (0.04)
4-9 yrs	0.95 (0.12)	1.03 (0.04)	1.03 (0.04)
+10 yrs	0.94 (0.21)	1.07 (0.05)	1.04 (0.02)

Note) 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region, and c)surviving period

Table 9. Variability of Labor Market by Industrial Group, Region and Employment Size

Categories Region[a)] Scale[b)]	Industrial Group Primary Avg. (C.V.)	 Secondary Avg. (C.V.)	 Tertiary Avg. (C.V.)
Nation			
Tiny	1.00 (0.09)	1.01 (0.04)	1.02 (0.02)
Small	0.98 (0.06)	1.04 (0.06)	1.04 (0.05)
Medium	0.93 (0.18)	1.03 (0.04)	1.05 (0.03)
Large	- -	0.99 (0.08)	1.05 (0.10)
Urban Areas			
Tiny	0.99 (0.12)	1.01 (0.04)	1.02 (0.02)
Small	1.01 (0.11)	1.03 (0.07)	1.05 (0.05)
Medium	0.97 (0.13)	1.02 (0.05)	1.05 (0.03)
Large	- -	0.98 (0.10)	1.05 (0.10)
Rural Areas			
Tiny	1.00 (0.09)	1.02 (0.05)	1.01 (0.03)
Small	0.98 (0.08)	1.06 (0.05)	1.03 (0.03)
Medium	0.91 (0.24)	1.05 (0.04)	1.05 (0.04)
Large	- -	1.01 (0.08)	1.08 (0.14)

Note) The businesses were categorized by a)region, and c)surviving period

변동계수도 크며 변동률이 낮아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V. 결 론

농촌지역의 고령화, 인구유출과 같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방안이 '6차 산업', '도·농 연계사업' 등의 논의를 통해 다루어져왔다. 이들 논의의 핵심은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인구이탈을 방지하고 귀농, 귀촌인구의 유입을 도모하자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체 유형별로 각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안정적 노동시장 확보를 위한 각종 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체의 산업·존속기간·규모·설립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하고 이를 도시지역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확보에 유리한 사업 유형과 불리한 사업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종사자 분포와 사업체의 산업별, 존속기간별, 규모별 종사자 분포를 교차분석한 결과 두 분포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종사자 분포와 사업체의 규모 및 존속기간 별 분포 사이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안정성 분석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사이의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모두 2005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노동시장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설립주체에 따라 '회사법인'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이 '개인사업체'의 노동시장보다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 분류에서는 농림어업 분야의 노동시장이 다른 광업·제조업 분야나 서비스업 분야에 비해 안정성이 낮고 노동시장 규모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립 후 존속기간이 긴 사업체가 보다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농촌지역에서는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노동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비교에서는 종사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 특히, 농촌지역에 위치한 '대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은 변동계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수치를 나타내어 안정적 노동시장 조성에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체 설립주체 별로 조성하는 노동시장 분석결과에서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5인 이하인 '영세기업'에서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였으며, '회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의 형태가 안정적 노동시장 조성에 유리하였다. 두 설립 유형 모두 '대기업' 규모의 사업체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지역에서 안정적 노동시장 조성에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사법인'에서 조성하는 농림어업분야의 노동시장은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설립 후 10년 이상 존속한 '안착기업'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노동시장 조성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중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착기업'과 '중기업'은 다른 유형의 사업체에서는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농림어업, 그리고 농촌지역의 '안착기업'과 '중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의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였을 때에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모두 노동시장이 안정적이었으나 이를 사업체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유형이 발견되었다. '회사법인'의 사업체와 '안착기업', 그리고 '중기업'은 유형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높은 사업체 유형에 해당하였으나 도시지역 농림어업 분야의 '회사법인'·'안착기업', 그리고 농촌지역 농림어업 분야의 '회사법인'·'중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매우 취약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안정적 노동시장 확보에 유리한 사업체 유형으로는 종사자 5인 미만인 '영세기업'의 '개인사업체', 그리고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회사법인' 형태가 도출되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기업'이 안정적 노동시장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사법인'의 경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중기업'의 사업체가 가장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는 안정적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업체 유형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설립주체에 따라 안정적 노동시장 확보에 불리해 질 수 있는 만큼 사업체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야할 것을 판단된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농림어업 분야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어업 분야 사업체의 설립은 법률상에 명시된 조건이 엄격하고, 사업에 따라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어 농촌지역 그리고 농림어업 분야 노동시장의 확보와 안정

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많은 제도적, 정책적인 보완이 마련됨과 동시에 현황파악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기업'이 조성하는 노동시장은 '영세기업'이나 '중ㆍ소기업'에 비해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농촌지역에 진출한 '대기업'이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도시와 농촌지역, 그리고 각 유형별 사업체가 조성하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가 지역 노동시장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1998-2006)'와 '전국사업체조사(2007-2012)'에 등록된 사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가 조성하는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안정성을 분석하였기에 농민과 같이 별도의 사업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종사자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업체가 업종을 변경한 경우와 같이 사업체 고유 코드가 필요한 분석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연구결과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이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한 분석하지 않았다.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종류에 따른 안정성 분석과 지역인구, 산업 및 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1. Ahn, J.H., 2009, Comparison of Employment Fluctuations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n Korean: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변동 비교 분석: 기술진보와 경기변동의 시기별 영향),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15(1), pp.27-58.
2. Ahn, G.B., 2010, A Study on the Revitalize Fishing Villages through the Analysis of Amenity Resources,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6(4), pp.147-156.
3. Ahn, J.H., 2011, Uncertainty of Demand and Dynamics of Labor Market (in Korean: 수요의 불확실성과 노동시장의 동학: 불확실성의 노동시장 내 배분 구조와 변화 양상),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17(2), pp.69-104.
4. Byun, Y., 2010, Measuring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Security based on Principal Component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10(4), pp. 1-37
5. Gottschalk, P. and R. Moffitt, 1999, Changes in Job Instability and Insecurity Using Monthly Survey Data,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4), pp.91-126.
6. Hong, S.C., 2015, Empirical Studies on Job Creation in Korea: Evidence from Firm-Level Panel Data, Korea University, pp.12-34.
7. Hong, S.H., and J.H. Im, 2015,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Deregulation in Capital Areas: Firms' Location Change through Difference-in-Differecenes Framework, Space and Environment, 25(1), pp.212-234.
8. Izraeli, O. and K.J. Murphy, 2003, The effect of industrial diversity on state unemployment rate and per capita income, Annals of Regional Science 37(1), pp.1-14.
9. Jung, E,H,, 2008, Corporate Governance and Employment Systems in Korea and Japan, Economy and Society, 79, pp.214-252
10. Keum, J.H. and J.M. Cho, 2001, Job Instability in the Korean Labor market: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IMF Economic Crisis,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1), pp.35-66
11. Kim, Y.J., S. Hoshino, and E.I. Son, 2012, A Study on the Drive Model of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fo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8(3), pp.1-11.
12. Kim, J.T., 2013, Analysis of Industry-dependent Employment Change Factors in Rural Areas: Targeting 5 Counties in Chungnam,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19(1), pp.123-135
13. Kim, K.S., Y.M. Jang, and Y.H. Do, 2014, A Study on the Survival Factors of Start-up SMEs Using Hazard Model by Industry, Korean Management Review, 43(1), pp.121-144.
14. Koo, Y., 2016,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lderly Employment: Focusing on the Comparison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9(1), pp.104-121
15.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중소기업중앙회), 2015, 2015 Current Stat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Korean: 2015년도 중소기업현황), pp.15-18
16. Korea Ins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산업연구원), 2013, Change of Employment Structure in

Regional Industry and Strategy for Job Creating (in Korean: 지역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pp.37-48
17.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Analysis of Employment State in Agricultural Industry and Labor Supply Stabilizing Strategy (in Korean: 농업분야 고용현황 분석 및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pp.26-48
18. Lee, C.H., 2012,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and Employment of Older Workers,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35(1), pp.55-88
19. Lee, B.K., 2013a, The Potential Possibility and Practical Policy Implements for Attracting Enterprises in Rural Area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0(1), pp.173-203
20. Lee, J.E., 2013b, Increasing Employment Flexibility and Job Stabilization in German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2), pp.966-973
21. Lee, J.M., 2016, Comparison of Startup Companies' Survival Rat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2(4), pp.149-159.
22. Malizia, E.E. and S. Ke, 1993, The influence of economic diversity on employment and stability,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3(2), pp.221-235.
23. Mason, S. and D. Howard, 2011, Regional unemployment and regional industrial diversity in New South Wales statistical districts 1996 to 2006, Proceedings of the Way Forward, Austerity or Stimulus: 13th Annual Conference of the Centre of Full Employment and Equity (CofFEE), Newcastle, NSW, 7-8 December, 2011, pp.77-87.
24. Mizuno, K., F. Mizutani and N. Nakayama, 2006, Industrial diversity and metropolitan unemployment rate, Annals of Regional Science 40(1), pp.157-172.
25. Na, S.G., and J.S. Lee, 2007, Survival Analysis of New Birth Enterprise: Focused on Technological Innovation Manufacture, Daehan Journal of Business, 20(3), pp.1325-1340.
26. Park, B.H. and Y.B. Kim, 2010, A Study on Employment Stability in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Focusing on the Specialty of the Labor Market,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24, pp. 7-32
27. Park, J.W., 2011,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Plant Grwoth and Survival in the Korean Mining and Manufacturing Sector, Seoul Citizen University, pp.1-10.
28. Park, Y.C., 2013, The Exploratory Research of Industrial and Regional Factors Affecting Private and Single Enterprises' Post-entry Survival in Korea, Sung-Sil University, pp.3-21.
29.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농촌진흥청), 2016, The Digital Glossary of Agriculture(in Korean: 디지털농업용어사전 3.1), http://lib.rda.go.kr/newlib/dictN/dictSearch.asp
30. Ryu, S. and S.M. Yoon, 2007, The Effect of Industrial Diversity on the Economic Growth and the Instability of the Wide-Economic Zon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National Economy, 25(4), pp.101-123.
31. Ryu K., 2009, Job Mobility and Internal Labor Markets : An Analysis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1998~2005),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3(4), pp.37-76
32. Ryu, J.Y., 2013, Analysis on the Business Survival Rate and Impact Factor in Survival Durtion: Cases of Small and Medium Startup FirmsS in Seoul, eoul Citizen University, pp.1-16.
33. Ryu, S., K.H. Choi, S.H. Ko, S.M Yoon, 2014, The Impact of Industrial Diversity to Unemployment and Employment Instability: An Analysis of Regional Economy Using Panel Regression Model,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7(1), pp.129-146
34. Simon, C.J., 1988, Frictional unemployment and the role of industrial divers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3(4), pp.715-728.
35. Statistics Korea(통계청), 1998-2006,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in Korean: 사업체기초통계조사)
36. Statistics Korea(통계청), 2007-2012,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in Korean: 전국사업체조사)
37. Statistics Korea(통계청), 2011, Analysis of Birth and Death of Establishments (in Korean: 사업체생멸현황 분석), pp.226-256.
38. Sung, H.Y., 2000, An Empirical Study on the Firm Growth, Size and Age with Korean Manufacturing Firm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8(2), pp.71-85.
39. Trendle, B. and G. Shorney, 2003, The effect of industrial diversification on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Australasi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 9(3), pp.355-369.

40. Yang, J.I., J.H. Lee, and D.Y. Hwang, 2014, Empirical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6th Industrialization of Rural Agricultural Resources: Focus on the Field Experts and the Complementary Dema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20(3), pp.111-120.

- Received 4 January 2017
- First Revised 15 February 2017
- Finally Revised 23 February 2017
- Accepted 23 February 2017